

이 주의 투자 포인트 (4월 6일 주)

트럼프의 발언과 휴전 혹은 확산 가능성 여부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운데, 이번 주에는 미국 및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들이 혼재된 상황입니다. 미국에서는 CPI 발표를 통해 “유가발 물가 재가속 여부”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.

1. 미국 물가 주요 지표 발표 및 FOMC 의사록 공개

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한국시간 기준 9일 목요일 21시 이후 2월 PCE(개인소비지출)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, 10일 금요일 21시 이후에는 3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. FOMC 의사록은 9일 공개될 예정입니다.
-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분은 PCE보다는 CPI에 반영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2월 CPI는 전년동기 대비 2.4% 상승을 기록하였으며, 현재 시장에서는 3%대를 상회할 우려까지 컨센서스에 반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.
- **예상된 결과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024년 상반기 수준인 3% 이상으로 재진입할 경우 시장 반응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** 또한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
- 결론적으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될 경우 유가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하고 주식시장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2.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

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핵심 이벤트입니다. 현재 시장 기대치는 메모리 업황 회복과 AI 수요를 반영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블룸버그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39.4조원 수준이며, 4월 이후 발표된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최소 38조원에서 최대 54조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.
- 만약 영업이익이 40조원을 상회할 경우, 이는 삼성전자의 2025년 연간 영업이익(43.6조원)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시장 평균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. 이번 실적의 핵심은 단순한 실적 수준이 아니라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상회하는지 여부입니다.
-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될 경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며 코스피 하단을 지지하고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반면,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거나 이를 하회할 경우 이미 높아진 기대치 부담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

-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(1분기 비수기 감안), 50조원에 근접한다면(연율 기준 200조원)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
Compliance Note
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